

# 연금 시장 리뷰

##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통일 한국의 미래상

## 퇴직연금

- 동향 : 국민연금실버론, 12년도 150억 증액으로 사업지속 실시
- 이슈 : 저축할 때의 유의사항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6월말

##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7월 고용 증가세 지속

-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 취업자 증가: 7월중 취업자는 2,51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0만명 증가하며 지난달 36.5만명을 기록한 이후 한달 만에 40만명대를 회복
  - 제조업 고용 증가: 2011년 7월 이후 1년 만에 제조업 고용이 3.4만명 증가. 반면, 도소매업 등 내수업종은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
- 7월 고용은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하반기 고용시장은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동향: 해외 금융시장의 안정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로 국내 금융시장도 상승

-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었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살아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상승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8월 3일 2.77%에서 8월 21일 현재 2.90%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8월 3일 1,133.5원에서 8월 21일 현재 1,129.5원으로 4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8월 3일 1,848.7에서 8월 21일 1,943.2로 94.5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8월3일	8월21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6	4.2	3.4	3.4	3.4	2.8	2.4	-	-
	산업생산(%)	7.0	10.6	7.2	5.3	5.3	4.2	1.5	1.6	-
	소비자물가(%)	4.0	4.5	4.2	4.8	4.2	3.0	2.4	2.2	1.5
	실업률(%)	3.4	4.2	3.4	3.1	3.0	3.8	3.3	3.2	3.1
	경상수지(억달러)	276.5	26.1	54.9	69.0	126.7	25.6	111.4	58.4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2	3.80	3.68	3.60	3.41	3.45	3.39	2.77	2.90
	원/달러(원)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31.3	1,152.1	1,133.5	1,129.5
	코스피지수(P)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14.0	1,854.0	1,848.7	1,943.2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8월 3일은 6월, 8월21일은 7월 수치임.

## □ 경제 이슈: 통일 한국의 미래상

### -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

#### 1. 남북한의 위상

1945년 분단 이후 67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사회상이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1975년 이후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197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은 19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등 만성적 경제난을 겪고 있다. 통일한국을 달성할 경우 남북한 모두 경제 성장의 신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위상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 2. 통일한국의 미래상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2050년까지 각 부문별 통일한국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인구)** 통일한국은 2050년 7,350만 명으로 한국 41위보다 높은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8.0%로 한국 54.0%보다 4%p 증가할 전망이다. 7천만 인구 달성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경제 성장)** 명목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한국 4조 730억 달러보다 높아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는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지하자원)**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중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비)** 한국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매년 0.1%p씩 줄여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 이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 8,8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 남북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한국의 하계올림픽 종합 10위권 수준에서 5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 통일시 뛰어난 선수 기용,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순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력)** 세계 전체 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하여 측정되는 국력 지수로 보면, 2050년 한국 1.21보다 높은 1.71로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시사점과 과제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 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한국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을 갖도록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선임연구원 (2072-6226, hjlee@hri.co.kr)

□ 동향: 국민연금실버론, 12년도 150억 증액으로 사업지속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약)

-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추진계획변경(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가능 -

○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의 '12년도 예산(300억) 조기소진으로 사업중단이 예상되어, 150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국민연금실버론은 3년간('12. 5~'14) 총예산 900억원(매년 300억원)의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사업시행 두 달만에 80%이상이 집행되면서 '12년도 사업의 조기마감이 예견됨

\* '12. 7. 20일 현재 262억원 대부로 '12년도 예산 300억원의 87%에 해당

- 대부금액이 주로 전·월세자금(61.9%), 의료비(37.3%)등에 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150억원을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결정

- 이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난을 당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용제한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함

\* '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에 달함

○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현황('12. 7. 20 현재)은

- 6,711명에게 262억원 대부하였으며, 사업초기 1일평균 최대 17억원으로 신청이 급증하였으나 대기수요의 해소로 1.7억원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대부자금의 용도는 전·월세자금 4,156명(61.9%), 의료비 2,505명(37.3%), 장제비 33명(0.5%), 재해복구비 17명(0.3%) 순임

- 평균대부액은 3,905천원으로, 장제비 4,535천원, 전·월세자금 4,486천원, 재해복구비

4,350천원, 의료비 2,929천원 순임

-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신청 당일에 3,585명(53.5%) 지급, 신청 다음날까지 6,034명(90.1%) 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대부자의 편의를 도모**
- **대부상담자에게 재무영역 외에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건강·주거·대인관계·여가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실버론의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취지를 밝힘
- 아울러 **총 예산 90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 전후**에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임

## □ 이슈 : 저축할 때의 유의사항

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현재 쓰지 않고 남기는 행위이며, 보통 손쉽고 안전한 금융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를 혼동하고 있는데, 저축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현명한 저축을 위해서는 저축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단 저축하기로 결정하면 무턱대고 금융기관에 맡기기 보다는 여러 유의 사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하여 예금인출 사태를 보았고, 예금자들이 예금보호한도 이상의 저축에 대해서 큰 손해를 입은 것도 확인했다. 여기서는 먼저 저축의 선택과 목적을 살펴본 후 저축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 저축의 선택과 목적

저축과 투자는 모두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인 점은 같으나 개념상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손실 없이 정해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정해진 기대 이상의 수익은 어렵다. 대표적인 저축 수단으로는 은행의 정기예금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의 확실한 가치를 희생하는 행위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원금의 손실을 겪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증식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통해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선택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 등 3가지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결정한다. 수익성이란 일정기간 투자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정도이며,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예금에 저축하는 것보다 크다. 안전성이란 투자한 원금에서 손실이 나지 않을 가능성으로 대개 투자위험에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성과는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 예금에 저축하는 것보다 안전성이 낮다. 그리고 유동성이라고도 불리는 환금성이란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대개 부동산이 가장 환금성이 낮고, 그 다음으로 펀드 등과 같이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된 금융 투자상품이며, 예금 등의 저축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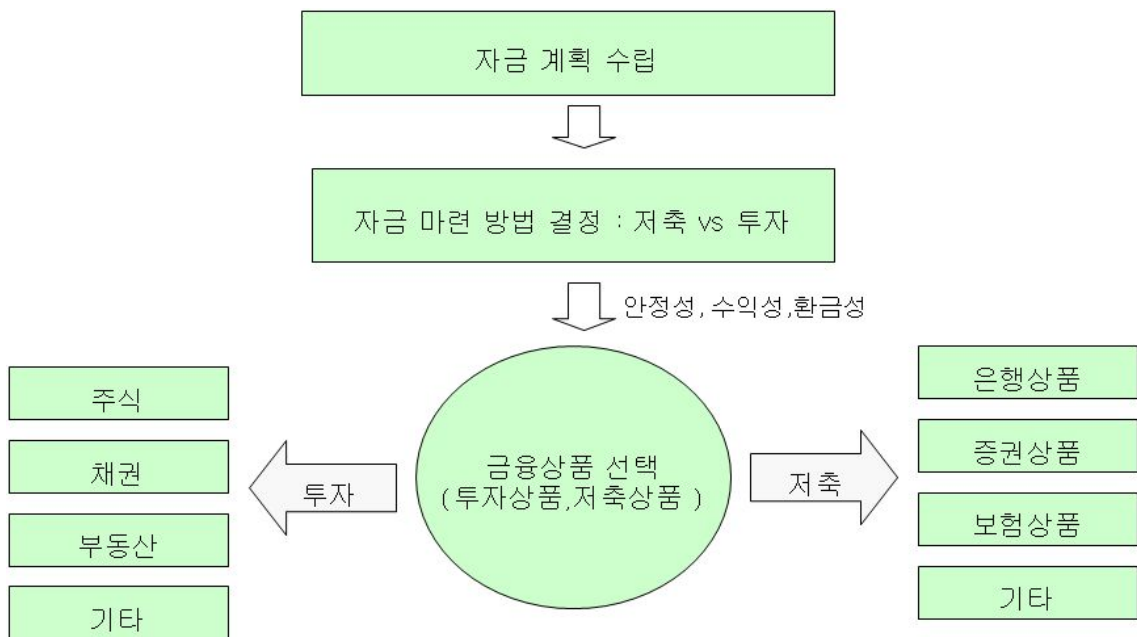
### ○ 요구불예금 vs 저축성예금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러 갈 경우, 너무나 많은 종류의 예금상품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지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은행의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출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금주가 인출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예금이다. 이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별단예금 등이 있다. 한편 저축성예금은 기본적으로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며, 예금의 납입과 인출 방법에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는 기한부예금이다. 이에는 정기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 저축과 투자의 선택 >



돈을 모으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투자보다는 저축이 가장 손쉽고 안전하다. 하지만 저축을 한답시고 무턱대고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 투자를 혼동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무작정 저축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금사용 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저축을 하기 전에 주택구입, 노후생활자금 또는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거나, 목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안전하게 불리기 위해서와 같은 가능한 저축하는 목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저축상품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기관, 증권회사와 보험사 등에서도 선택 가능하지만 그 종류가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비치된 팸플릿을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나 아무리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 해도 목적별로 큰 덩어리로 분류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예컨대 주택자금·노후생활자금 마련 등의 목적에 따라 특별히 개발된 장기저축상품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 있다. 공과금 납입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상품도 있다. 또한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긴 후 만기에 원리금을 되돌려 받는 거치식 상품이 있는가 하면,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상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이 있고, 만기일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불이익(중도해지이율)을 받는 상품도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내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저축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계획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 맞는 저축 수단을 찾아야 한다.

< 목적별 주요 금융저축상품 >

목적	상품 종류
자유로운입출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목돈마련	○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목돈불림	<b>1년 이내</b>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금융상품 ○어음관리계좌(CMA)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b>1년 이상</b> ○정기예금 ○특판정기예(적)금 ○정기예탁금 ○금융채 ○소액채권저축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 ○맞춤형신탁 ○단위형금전신탁
주택마련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 및 서민 주택자금 대출
노후생활자금마련	○신개인연금저축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교육자금마련	○장학적금 ○교육보험
증권투자관련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보험관련	○실세금리연동형보험 ○여성건강보험

주: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어음관리계좌)

○ 저축할 때의 유의사항

금융저축의 목적이 결정되고 이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았다고 무턱대고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저축상품에도 저축기간, 금리의 선택, 세금 등 여러 가지 유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선택하여야 한다.

① 저축기간의 선정

금융저축의 목적이 세워졌으면 그 예치자금을 찾을 시점을 예측해야 한다. 신중한 기간 예측 이후에 금융상품을 골라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출 계획 없이 높은 금리만을 보고 무조건 장기상품에 가입해 버린다면 다급하거나 예상 가능했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눈물을 머

금고 해지수수료를 내거나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당하는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따라서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금지출 계획과 저축 기간을 일치시킨다는 원칙 아래 장기 저축자금과 단기 운용 자금을 구분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이 필요한 기간이 불확실하다면 하나의 상품으로 큰 금액을 저축하는 것보다 여러 상품에 분산하여, 유사시 필요한 만큼의 저축 분량만을 해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환금성이 높은 단기 상품에 가입한 뒤, 시간 여유를 갖고 자금 사정이나 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저축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환금성이 높은 대표적인 단기상품으로는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주식투자를 위한 단기 대기성 자금 성격의 자산운용회사의 MMF(Money Market Fund), 증권회사의 CMA 등을 들 수 있다.

## ② 금리(고정 vs 변동)의 결정

중장기 금융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확정금리를 선택할지, 변동금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고정 금리로 예금했을 경우 시장금리가 오르면 다른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를 덜 받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예금상품을 중도에 해지(解止)하고 금리가 높은 다른 예금상품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말한 대로 중도해지에 따른 벌칙, 추가적인 거래 수수료 등 때문이다. 또한 예금금리가 시장금리에 맞추어 변화하는 변동금리의 경우에도 또 다른 금리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시장금리가 내린다면 본인이 받을 금리 역시 내리기 때문에 사전에 고정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 비해 이자를 덜 받게 되므로 이 역시 금리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확정금리를 선택하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혼자서 선부른 금리 전망은 삼가고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판단해야 한다. 만일 예측한대로 금리가 변화하면 다행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예측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은 투자 상품투자의 가격 변동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금을 안전한 상품으로 분류한다.

## ③ 예금보호 여부 확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그 상품이 예금보호가 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영 악화에 직면하여 파산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의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한다.

하지만 예금보호 금융기관이라 해도 모든 금융저축상품이 예금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호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성예금은 대부분 예금보호되고, 실적에 근거해 배당하는 상품, 즉 실적배당신탁상품,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현재 예금보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先順位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와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④ 세금혜택 여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금리시대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제 2금융권에서 예금한다 하더라도 금리는 특별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그 금융상품이 세금혜택이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해 15.4% 세금(주민세포함)을 내고 있다. 세금혜택 금융상품에는 3가지가 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 농특세(농어촌 특별세) 1.5%만 부과하는 저율과세 상품, 세율이 9.5%인 세금 우대상품 등이 그것이다. 또 연말에 소득을 공제해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 따라서 비과세이면서 세액이 공제되는 금융상품이 가장 으뜸이다. 더구나 비과세 저축 상품은 2001년부터 실시된 '금융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비과세 상품은 세금감면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입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복해서 가입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상품을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 장마저축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상적으로 줄여 부르는 '장마저축'이 있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 300만원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선 매월 62만5천 원씩 불입하면 된다. 7년 이상 불입할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다음해 1월 급여일에 29~118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안에 저축을 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도로 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장마저축의 세제혜택이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12년까지로 못 박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일몰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저축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우대상품(세율 9.5%)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국가가 국민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 특별히 배려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에 따라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품의 경우 1인당 가입한도를 정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가입한도 : 가입한도: 20세이상 1천만원, 노인 및 장애인 3천만원). 예외적으로 가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은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과 신용협동기구 예탁금 등이다. 저축을 통해 보다 많은 이자 소득을 얻으려면 가족 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세금혜택 금융저축 상품 >

비과세 (0%)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투자신탁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우대보험, 근로자우대증권저축 등
	장기저축성보험	슈퍼재테크보험, 밀레니엄 저축성보험 등 만기 7년 이상 보험
	생계형저축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 저축예금, 정기예적금, 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저율과세 (1.5%)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일반 조합원 및 회원 들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조합 예탁금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9.5%)	세금우대종합저축	정기예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 금전신탁, 수익증권, 하이일드펀드, 후순위담보채(CBO)펀드, 채권저축, 보험저축 등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보험(공제), 연금투자신탁

주 : 세금관련 상품과 세율은 정부정책에 의해 빈번하게 변경됨

○ 금융종합과세 제도

금융소득이 매우 클 때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를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세금(15.4%)을 원천징수하는데 원천 징수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천 징수한 이후에도 기준 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종합과세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을 모두 4,000만원이 넘는 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때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은 공제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다. 물론 비과세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 기타

그밖에 저축 취급기관의 자금 운용능력과 운용방식, 단골고객에 제공하는 부대서비스의 내용, 점포망,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친절도 등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금융상품이라도 취급기관의 운용능력이나 운용방식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단골 고객이나 거액예금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적용, 긴급자금 대출, 재테크 상담 등 여러 가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순수 예금상품만을 통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기술(IT)의 발달과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혁신이 거듭되면서 여러 유사 저축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은행 등에서도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가미한 저축상품이 많이 있을뿐더러 증권회사 등에서도 다양한 자본시장 상품을 결합한 이른 바 복합금융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저축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가 아닌 저축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편으로 다양한 유의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저축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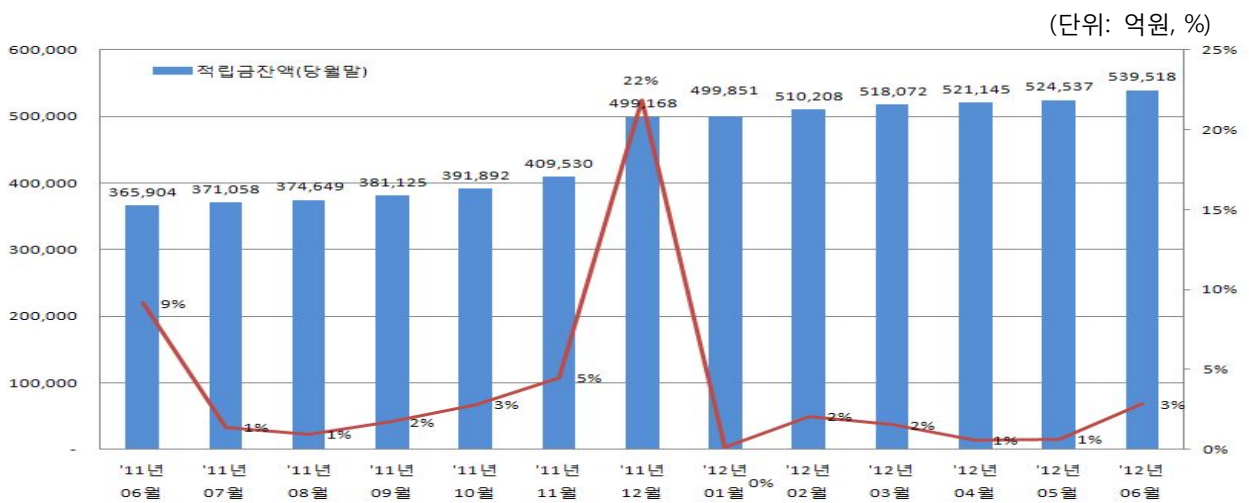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박덕배 전문연구위원(02-2072-6216, dbpark@hri.co.kr)**

□ 퇴직연금통계 (2012년 6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6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3 조 9,518 억원으로 전년동기 (36 조 5,904 억원) 보다 17 조 3,614 억원(47.4%) 증가
- 제도유형별로는 퇴직급여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주로 DB제도를 선호함에 따라, DB 비중(73.4%)이 가장 높음
- 퇴직금 추계액(142.5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4.6%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7,460 개소로 전년 동기(112,861 개소) 대비 48.3% 증가
- 쉐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1.0%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99,724	43,461	17,800	4,695	773	1,007	167,460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7.8	24.4	32.5	42.8	54.2	77.9	11.0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1978년에 발표한 역작 <리더십 강의>를 통해 리더십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개척했고, 오늘날 리더십 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J. M. Burns)는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한다.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은 지도자가 여러 정치 주체들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리와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이다.

반면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지도자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은 영웅이나 위인 이론과는 달리 대중을 변화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집단의 정체성과 능력을 고무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최근 번스는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Transforming Leadership, 2003)에서 21세기를 변혁시키고 올바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변혁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부도덕하게 변질된 경우가 많은 '카리스마 기반 리더십'이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물밑 협상과 거래를 서슴지 않는 '거래적 리더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리더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변화'(change)가 시작되는 곳에서 리더십은 시작한다.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욕구'(want)가 싹트면서 시작한다. 지도자는 추종자의 욕구를 감정이 입을 통해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 정립하여 정당한 '필요'(need)로 바꾼 뒤 이에 대처한다. 지도자는 추종자들이 욕구를 '희망'과 '열정'으로, 다음에는 좀 더 의미 있는 '기대'로, 최종적으로는 '권리'로 탈바꿈하도록 도와준다. 지도자는 이 과정에서 추종자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는 추종자들의 욕구, 필요, 기대에 밀접하게 보조를 맞춤으로써 계속 전진한다. **추종자들로부터 배**

우고 지도되는 것이다. 결국 지도자가 추종자의 뜻에 부응함으로써 이끄는 것이다.(leading by being lead)

그런 의미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노자의 '도덕경'에 닿는다. **"남아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행하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이끌되 지배하지 않는다."**

## 변혁적인 리더는 꿈을 중개하는 사람

변혁적 리더십은 지도자-추종자의 이분법적 구도를 지양한다. 좋은 지도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에 추종자의 욕구를 투영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때 지도자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비전 제시와 동기 부여이다. 저마다의 목표, 희망, 공포로부터 한 차원 높은 욕구를 추출해서 집단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전략적 비전을 만들어서 추종자를 하나로 묶고 그들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와 같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와 도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도자-추종자를 단단히 묶어낼 변혁의 힘은 다름 아닌 도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가치에 토대를 둔 리더십의 역할은 사회가 개방적이고 다원적이 되면서 더욱 중요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수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는 가치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 하는 일은  
당신이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 지그 지글러 : 미국의 성공 철학자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